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세요”

르포

광주지역 주말 유세 현장

지지층 결집 부동층 흡수 사활
각 후보진영 유세 장비 총동원
일부선 지지자간 충돌로 논란
“서민 삶 챙기는 후보 됐으면”

“투표가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6월 3일 국민을 위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를 나흘 앞둔 지난 달 30일 광주지역은 마지막 주말 유세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각 대통령 후보 광주지역 선대위는 마지막 주말 유세에 총력을 펼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

주요 거점마다 후보의 얼굴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나부끼고 유세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짜렁짜렁한 연설 소리가 도심에 가득 메웠다.

특히 유세차량 앞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광주지역 선대 위원장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주말 유세 현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구 치평동 상무금융시장 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광주 선대위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광주 선대위 유세차량이 몰리며 열린 유세전이 펼쳐졌다.

각 정당은 지역 시장의 주요 인사들을 총출동

시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지지자들과 유세원들은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열기를 더했다.

그러나 뜨거운 유세 열기 속에서 일부 과열된 분위기로 인해 아쉬운 장면도 연출됐다.

유세 현장에서는 지지자들과 당 당직자와 연쟁이 벌어지거나 유세원과 시민 사이에 고성아 오가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한 광주시민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상대 진영을 조롱하는 등의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난 박주원씨(40)는 “마지막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열기가 훨씬 뜨거운 것 같다”며 “어떤 후보가 되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영주씨(21)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인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본 투표까지 후보들의 공약과 유세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목련마을 사거리. 이곳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광주 선대위가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3명의 유세원들이 선거 노래에 맞춰 더 큰 동작과 목소리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부탁하자 지나던 중·고등학생들이 이준석 후보의 유세 송을 따라 부르거나 손가락 4개를 펼치며 흔드는가 하



청소년 인문 골든벨

지난 31일 광주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원에서 열린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청소년 인문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이 정답을 적어 들어 올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면 신호에 걸려 멈춰있는 차량 운전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그들의 노력을 하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오후 6시께 동구 소태동 한 사거리에서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광주시의원은 “계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외쳤다.

후보들의 당선을 응원하는 유세원들의 노고도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궜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에 서서 후보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저녁 퇴근 인사를 앞두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간절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선거운동원들은 유세차량 옆에서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마지막까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애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뛰어나다며 시민들을 만났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끌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선거운동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후보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며 “6월 3일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광주경찰, 6월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사흘새 사망사고 3건 발생

광주경찰이 6월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 14분께 남구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버스 등을 잇달아 충격해 중앙선 침범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께 동구 한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황

색 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한 차량과 부딪혀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0분께 남구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가 과속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취약장소를 선정해 과속,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철 이용량이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의 주원인인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PM(개인형 이동장치)과 이륜차의 운전자는 운행시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보석 청구

“고령으로 건강상태 고려” 호소

‘황제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허씨 측 변호인은 “강제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이고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 기소 이후에 이 사건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 80세 이상 고령의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데 단지 연영을 이유로 특례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난달 27일 당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최환준 기자

암 투병 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징역 4년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

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남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했고,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했다.

최환준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 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 노래홀, 홀덱) ▶ 6층 (전용 60평)

(보2천, 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